# 통도사 '천년 법맥' 빛과 문화로 피어나다

**10월 19일까지 영축문화축제**
**10월 19일, '개산대재 법요식'**
**미디어아트 · 사생대회 등 펼쳐져**
**전통 불교 의례 · 현대 예술 융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경내 일원에서 '천년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산 1381주년 영축문화축제 및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개산대재 법요식 모습.

신라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지 1381주년을 맞아 전통 불교 의례와 현대적 예술이 융합된 장엄한 문화의 향연을 펼친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경내 일원에서 '천년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산 1381주년 영축문화축제 및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축제의 백미이자 대미를 장식하는 개산대재 본 행사는 통도사 창건일인 10월 19일에 거행된다. 이날 오전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자장 율사의 거룩한 뜻을 기리는 '영고재(오전 8시 30분)'를 시작으로 불보살을 모시는 '영축삼보 이운(오전 9시 30분)'과 대형 불화를 내거는 '괘불헌공(오전 10시)'이 차례로 산사를 수놓는다. 이어 산문을 연 1381년의 역사를 되새기며 불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개산대재 법요식(오전 10시 30분)이 봉행되어 축제의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국화장엄'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한다. 특히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통도, 고요에 이르다'가 이어진다. 어둠이 내린 천년 고찰의 전각과 자연을 거대한 도화지 삼아 펼쳐지는 첨단 빛의 예술이다.

10월 5일 오후 2시 통도사 삼성반월교 앞 야외무대에서는 통도사 본사 및 여러 말사 사찰 합창단이 동참하는 '제3회 통도사 합창제'가 열린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불교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는 열린 무대도 준비돼 있다.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축암 인근 메밀밭 운동장에서는 '제5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가 열린다. 청소년들이 도화지에 통도사의 수려한 가을 풍광을 직접 담아내는 이 행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존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6일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대접하는 '만발공양(오전 11시 30분)'과 다채로운 '영축문화공연(오후 1시)'이 진행되어 자비와 나눔이라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생생하게 실천한다.

10월 17일 오후 2시 부도전에서는 자장 율사를 비롯해 통도사의 천년 법맥을 지켜온 69명의 역대 고승들에게 맑은 차를 올리는 '부도 헌다례'가 엄숙하게 열린다. 헌다례 직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다인(茶人)들이 준비한 차와 다식을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는 '두리차회'가 이어진다.

통도사는 이번 개산대재를 맞아 "천년 고찰이 품고 있는 맑고 향기로운 불교문화의 정수를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훌쩍 산사를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문화 향연을 마음껏 누리며 심신의 평안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로 첫출발

**부산불교연합회, 9월 12일**
**북항친수공원서 '걷기 명상'**
**정오 스님 "사회 화합" 염원**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2일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이어오며 국태민안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던 국가적 불교 전통 축제 '팔관회(八關會)'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걷기'로 올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9월 12일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화려한 행사 소음 대신 수많은 참가자들의 고요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막 선언 후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은 북항의 탁 트인 바다 조망을 따라 마련된 수변 산책로 코스를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심의 화려한 풍경과 대비되는 차분한 바닷길을 따라,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일상의 피로를 덜어낸 듯한 여유가 묻어났다.

참가자 박은지(26·부산대) 씨는 "도심 속에서 바다를 보며 조용히 걷다 보니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기분"이라며 "전통 불교 행사라고 해서 엄숙할 줄만 알았는데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통문화에 '디지털 혁신(DX)'이 접목돼 눈길을 끌었다. 출발선과 코스 곳곳에는 국내 불교 행사 최초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폰 'NFC 인증 시스템'이 도입됐다.

걷기 코스 지점마다 스마트폰을 가볍게 태그해 실시간으로 완주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대규모 인원의 동선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해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인증 시스템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범어사의 마음치유 브랜드 '비오마인드(BEO Mind)'와 금정산 숲길 걷기 명상인 '비오워크(BEO Walk)'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전재수 부산시장,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내외 귀빈이 대거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리를 빛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며 "오늘만큼은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부산의 밤바다와 야경 속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팔관회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인간성 회복을 통해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국가 행사 중 하나"라고 의미를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명상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범어사에서 선재동자 수계법회,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 수계법회 등 본행사를 차례로 봉행하며 시민의 행복과 나라의 평화를 위한 염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500년 선맥 이을 벽송선원 무문관 낙성

**9월 12일, 함양 벽송사 낙성법회**
**만일 스님 "정진 중심 도량 발원"**


함양 벽송사는 9월 12일 '벽송선원 무문관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500여 년간 이어온 선맥을 계승할 새로운 정진도량의 출발을 알렸다.

함양 벽송사(주지 만일 스님)는 9월 12일 '벽송선원 무문관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500여 년간 이어온 선맥을 계승할 새로운 정진 도량의 출발을 알렸다.

벽송사는 1520년 벽송 지엄 선사가 중창한 이후 수많은 선지식이 주석하며 수행해 온 지리산의 대표적인 수행 도량이다. 이번 무문관 낙성은 조사들의 수행 가풍을 오늘에 되살리고 한국불교 간화선 정신을 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인총림 방장 대원 스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공부하는 이 공부가 최상의 공부요, 최상의 불사"라며 "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는다면 함께 불사에 동참한 이들도 큰 인연과 복을 지은 것"이라고 법문했다.

주지 만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땀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과 기도로 마음을 모아준 불자들의 원력으로 벽송선원이 명실상부한 수행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벽송선원을 옛 대선사님들의 정법을 이어받은 정진의 중심 도량이자,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정법을 세상에 전하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발원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주지 스님의 리더십과 벽송사 대중의 화합된 모습이 오늘의 훌륭한 불사로 나타났다"고 격려했다. 함양불교사암연합회장 도오 스님은 "무문관이 수행자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밝히고 해탈의 광명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벽송사는 무문관 불사의 원만한 성취에 기여한 정석 ㈜대륜건설 대표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또 수행 도량의 낙성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함양군 이웃돕기 자비성금 200만원을 양상호 부군수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해동용궁사 삼존불 새 금빛 장엄

**9월 11일, 점안 · 회향법회**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는 9월 11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회주 송천 종렬 대종사,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해동용궁사 회주 덕문 스님, 해동용궁사 주지 명섭 대종사·종걸 대종사·종상 스님을 비롯한 제방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이번 개금불사는 1976년 해동용궁사 대웅보전을 완공하고 삼존불을 봉안한 이후 오랜 세월 빛이 바래고 손상된 부분을 다시 순금으로 장엄해 부처님의 불신을 청정하게 모시기 위해 추진됐다.

해동용궁사는 2023년 11월 1일 고불식을 봉행하며 개금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삼존불의 노후 금박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탈금(脫金) 작업과 균열 보수, 전통 옻칠, 순금박 개금 등의 공정을 거쳐 이날 불사를 회향했다.

주지 덕림 스님은 "대덕 스님들과 국내외 내빈, 개금불사에 정성을 모아주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동용궁사가 부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인이 찾는 불교문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부산 자비암, '자비의 쌀' 기부

**9월 14일, 동래구청에 3톤 전달**




백중 회향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 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이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다.

자비암은 9월 14일 동래구청에 1000만원 상당의 쌀 300포대(총 3톤)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쌀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래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나눔은 자비암 신도들의 십시일반 보시와 주지 자관 스님의 사비가 더해져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장준용 구청장은 "기탁해 주신 귀한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관 스님은 기부 배경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남들이 명절을 즐길 때 소외된 이웃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이웃을 위한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창원 반야사, 추석 맞아 자비나눔

**9월 11일, 마산회원구에 쌀 기탁**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는 9월 11일 대웅전에서 '추석맞이 백미 나눔보시' 행사를 열고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에 740만원 상당의 쌀 200포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을 비롯해 경문 스님, 자오 스님, 조정현 마산회원구청장과 반야사 임원진 및 신도들이 참석했다.

기탁된 백미는 마산회원구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혜명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일 수록 소외된 이웃을 더욱 살펴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정현 마산회원구청장은 "기탁해 주신 쌀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여래사 불교대학 '무진등', 쌀·라면 기부

**9월 14일, 부산 동구청에서**




여래사 불교대학 신도 모임인 '무진등(대표 박동범)'은 9월 14일 부산 동구청에 백미 10kg 50포와 라면(20개입) 50박스를 기부했다. 물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진등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쌀과 라면을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식에서 박동범 무진등 대표(여래사 불교대학 부학장)는 "'무진등(無盡燈)'은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로, 한 사람의 불빛이 옆 사람에게 연결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임이 앞으로도 사회에 환원하는 단체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십시일반 성금을 보시해 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사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빛을 전하는 무진등의 훌륭한 취지에 맞게, 이 소중한 선물이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